

초등 실과, 기술가정, 가정과학 교과 내 '의생활' 영역의 연계성 분석

이은주*, 신혜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The Connection Analysis on the Areas of Clothing and Textiles in Practical Arts,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and the Science of Home Economics Courses

Lee, Eun Joo* · Shin, Hye W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 areas in practical arts,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and science of home economics courses, and the degrees of vertical connections among them.

Totally 21 textbooks were chosen for this study, which consist of fifth and sixth grade practical arts textbooks(one from each grade), sixtee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xtbooks(eight from each eighth and tenth grade), and three high school science of home economics textbooks.

In order to analyze systematically the degrees of vertical connections, clothing and textile areas were divided into 6 large sections, which were subdivided into 48 specific categories(contents) by content analysis. The method of connection analysis was based on development(constant continuity and sequence), repetition (continuity without considering sequence), gap(sequence without considering the continuity of curriculum), and reduction(the lack of both continuity and sequence). The connection analysis were done in 48 categories separately.

In the sections of clothing attire and clothing management, the most categories(46.1% and 44.5%) were evaluated as having connections of reductions. No category was analyzed as development in the section of clothing planning and the most categories(83.3%) had connections of repetitions. In the clothing material section, categories evaluated as gaps and developments were 55.6% and 44.4%. The clothing construction

section showed to be the section with the most in-depth and expanded content compared to the previous educational levels, with developed categories of 50%.

The most degree of connection in the clothing and textile areas of practical arts,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and science of home economics subjects was the development at 29.2%, followed by repetition at 25%, reduction at 25%, and finally gap at 20.8%. Developed categories were relatively more than repetitive, reduced, or gap contents. However, as the connection between grades was not highly outstanding,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the connection of the curriculum was adequately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school grades.

주제어(Key Words) : 의생활(Clothing and Textiles), 연계성 분석(Connection Analysis), 발전(development), 축소(reduction), 반복(repetition), 격차(gap)

I. 서 론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 시대에서 활동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 교과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지식의 변화, 교육 이론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정해왔고 현재는 제7차 교육과정시기로 초등학교는 2000년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001년과 200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실과(기술·가정) 교과와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산업과 가정으로 구분하여 이수하던 것을 기술·가정으로 통합 이수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과로 하였다. 교육 과정 체제는 5~10학년까지 내용 체계를 계열화, 통합화하여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 기술', '생활 자원과 환경'의 3개영역으로 나누었다. 11~12학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정과학은 제6차 교육과정의 가정, 가사 교과를 통합한 것으로 기술 분야를 제외한 가정과 교육과정인 '가족생활',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의 5개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교과와 성격, 목표, 지도 내용 등에서 연계성, 계열성, 통합성을 유지하여 편성하되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5~6학년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7~10학년은 그 상위 수준으로 하며, 11~12학년의 일반 선택 과목 및 심화 선택 과목은 수준 차이를 두고 있다. 5~6학년에서는 자신의 일상생활과 가정 일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7~10학년에서는 기술·산업과 가정생활에 관한 다양한 경

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고 11~12학년의 심화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의 실과와 7~10학년의 기술·가정, 심화 선택 교과인 11~12학년의 가정 과학 교과가 연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편성되어 있다.

이는 학년 간 및 학교 급별 교육내용의 수직적 연계성이 중요함을 나타내는데 교육내용의 연계성이 부적절하면 결과적으로 중복학습 또는 단절학습을 초래하게 되어 학습시간의 낭비,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의 저하,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다음 단계의 학습 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박근희, 2001; 송순희, 위정숙, 1991; 김미옥, 1988). 그러므로 초·중·고등학교 교과내용의 단계적인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학년 간 및 학교 급 별 연계성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술·가정 교과와 연계성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 실과와 기술·가정의 연계성 정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흡하나 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연계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으며 또한 기술·가정 교과와 교육목표와 내용의 통합이 어렵고 교과 명칭 및 편제에서 연계성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이춘식 외, 2004; 이양락 외, 2004; 박명희, 2005; 왕석순, 2005).

가정과 교과와 교육내용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가족과 일의 이해', '가족생활', '소비자 교육 내용', '식생활' 영역에 대한 연구(이지영, 2002; 정수경,

2004; 한성은, 2005; 양정혜, 2004)가 있으나 '의생활' 영역의 연계성 분석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생활' 영역의 교육 내용에 관련된 연계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실과, 기술·가정, 가정과학 교과 내 '의생활' 영역 내용을 학교 급별로 분석하고, '의생활' 영역을 다시 하위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여 수직적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향후 '의생활' 영역의 연계성 분석의 준거를 제시하고, 가정 교과 내 '의생활' 영역의 학습지도에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 및 교과과정 개편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연계성

연계성은 수평적 연계성과 수직적 연계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년 내의 영역 간 연계성은 수평적 연계성이고, 선행 경험 또는 학습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점차 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계열성과 계속성의 원리를 연계성으로 보는 학년 간 연계성은 수직적 연계성이다. 대체적으로 연계성은 수평적인 의미보다 수직적인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학년 간 교육내용의 연계성이란 체계적인 학습과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있어서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에 관한 연구로 R. W. Tyler (1949)는 수평적 연계성과 수직적 연계성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 교육과정 이론을 체계화시켰다.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를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의 세 가지 원리로 나누었다. 계속성은 유효한 학습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종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열성은 단순히 동일한 것이 계속 반복되기보다는 점차로 넓고 깊은 학습 내용이 조직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성은 학습 내용을 횡적으로 조직하는 것으로 내용, 경험, 능력들이 다른 영역과 어떤 식으로 상호 관련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이다.

J. S. Bruner(1960)는 같은 내용을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로 여러 번 반복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H. Taba(1962)는 R. W. Tyler의 이론인 계속성과 계열성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누적학습' 개념을 주장하였다. 누적학습은 동일 요소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점진적 심화·확대를 강조하고 특정 개념의 학습에 있어서 더 의미 있는 통합으로 이끌어주도록 하는 개념이다.

R. M. Gané(1970)는 한 학습 소인은 그 아래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위 소인을 갖게 되며 이 각각의 하위 소인들은 다시 그 아래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속적인 하위 소인을 갖는 것으로 보고 어떤 하위 소인의 학습은 바로 위의 상위 소인의 학습에 차례로 전이되는 관계를 갖도록 학습 소인들의 전체적인 조직망을 엮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학습 위계 이론'을 주장하였다. '학습 위계 이론'은 학습 위계에서 상위의 학습은 바로 그 아래의 학습을 선행 조건으로 요구한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연구는 R. W. Tyler의 '계속성과 계열성의 원리', Bruner의 '나선형 교육과정', Taba의 '누적학습', R. M. Gané의 '학습 위계 이론'을 종합하여 하나의 기본 틀로 설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2. 선행연구

제7차 교육과정의 가정 교과 영역의 연계성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춘식 외, 2004)이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실태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에서 초등실과와 중등 기술·가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교과의 내용상 삭제하거나 타 학년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단원을 초등학교 교사에게 조사한 결과 초등 실과의 '재봉틀로 용품 만들기' 내용이 중학교로 이동되어야 한다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다. 그리고 현행 실과와 중등 기술·가정과의 내용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와 교대 교수들은 실과와 기술·가정 교과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실과와 기술·가정 교과의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내용 수준 연계가 미흡하다'고 하였고, 교대 교수들은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간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응답하

였는데 이는 초등과 중등의 연계성 미흡에 대해 중등보다는 초등에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은아(2004)는 「고등학생의 기술·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에서 초등 실과 교과와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가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았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년 별 연계성에 대해 낮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지영(2002)은 「초등학교 실과와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가족과 일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에서 기술·가정교과는 5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내용에서 의사소통, 이동발달, 육아 등 독자적으로 나타나거나 한 학년에서만 다루기엔 부족한 내용도 많으나 반복되고 심화 발전된 내용이 축소되거나 격차를 보인 내용보다 많으므로 학년 간 연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정수경(2004)은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의 '가족생활' 영역 연계성 분석」에서 반복되거나 심화 발전된 내용이 격차를 보이거나 축소된 내용보다 많으므로 가정 교과의 '가족관계'영역에 대한 교과서 내용은 대부분 연계성을 있다고 보았다.

양정혜(2004)는 「실과와 가정교과의 식생활 교육내용의 연계성 분석」에서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내용과 중,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내용 간에는 내용의 발전적 연계가 이루어졌으나 중학교 학년 별 내용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교육내용은 일부분 격차를 보이거나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발전된 내용과 반복된 내용이 많으므로 학년 간 연계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한성은(2005)은 「제7차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소비자 교육 내용과 학교 급별 연계성 분석」에서 소비자 교육 내용의 연계성은 학교 급별로 중복되어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발전의 연계를 이루는 경우가 극히 적다고 하였다.

가정과 교육내용의 연계성 분석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영역별 분석은 반복되고 격차를 보인 내용이 있기는 하나 심화 발전된 내용이 보다 더 많으므로 학년 간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과(기술·가정)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연계성 연구 결과에서는 연계가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 설정에 있어서 초등학교 실과부터 고등학교 심화 선택교과인 가정 과학까지 전반적인 분석을 한 연구보다 단편적인 연구가 많으므로 초등학교 실과부터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과까지 전반적인 연계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연계성을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는 학습자들의 학업 진행을 위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제7차 교육과정의 5~6학년 초등학교 실과와 중·고등학교의 기술·가정, 11~12학년의 심화 선택교과인 가정과학의 내용 중 '의생활' 영역의 수직적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 1) 초등 실과와 기술·가정, 가정 과학 교과 내의 '의생활' 영역 내용을 분석한다.
- 2) 내용 분석을 기초로 하위 세부 영역별로 축소·격차·반복·발전에 의한 연계성 분석을 하여 '의생활' 영역의 수직적 연계 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 자료

연계성 분석에 사용된 교과서는 '의생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실과 각 1종 교과서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기술·가정 각 8종 교과서 및 고등학교 가정 과학 3종 교과서를 연구 자료로 선택하여 총 21종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교과서 선택의 기준은 초등실과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하는 1종 교과서(대한교과서), 중·고등학교의 기술·가정 교과서는 학년 간 연계성 파악을 하기 위하여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가 모두 출판되는 출판사의 8종 교과서(교학사, 교학연구사, 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 천지교육, 두산출판사, 지학사, 형설출판사)를 선택하였으며 가정과학의 경우 3종 교과서만 출판되고 있어 3종(교학사, 교문사, 상문연구사) 모두를 분석하였다.

3. 연계성 분석 방법

연계성 분석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의생활' 영역 내용을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으로 주요 학습 내용을 추출한 후 '의생활' 영역을 분류한 선행 연구(이은희, 1993; 최종명, 2000; 정지연, 2003; 강미향, 2005)를 참고하여 총 6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다시 48개의 하위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여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연계성은 학년 간, 학교 급별 교육과정 연계성으로 수직적 연계성을 의미한다. 연계성 분석 준거로 교육과정의 수직적 조직 원리인 계속성과 계열성을 핵심 요소로 보고 교육과정의 연계성 이론(R. W. Tyler, 1949; J. S. Bruner, 1960; H. Taba, 1962; R. M. Gané, 1970)과 선행 연구(송순희, 김윤영, 1998; 이지영, 2002; 정수경, 2004)를 기초로 <표 1>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학습내용의 계속성과 계열성이 지속적이어서 선행 학습과 후속 학습 간에 심화·확대가 이루어진 경우 「발전」으로, 계열성이 고려되지 않은 계속성은 후속 학습이 선행 학습에 비해 동일한 수준에서 단순히 반복된 경우이므로 「반복」으로, 학습내용에서 계속성이 고려되지 않은 계열성은 선행 학습에서 누락되었던 내용이 후속 학습에서 급격히 심화된 경우이므로 「격차」로 보았고, 계속성과 계열성 모두 결여되어 선행 학습의 개념이나 내용이 후속 학습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된 경우를 「축소」로 보았다.

특징은 '용품 만들기'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이전의 초등 실과의 '의생활' 영역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5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는 '피복 선택과 옷차림', '용품 만들기', '수선과 피복 위생' 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면서 점차 '용품 만들기' 로 축소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피복 선택과 옷차림' 영역이 약 3%, '수선과 피복 위생' 영역은 약 6%로 실과에 포함되었지만 제7차 교육과정 때 삭제되었다(이춘희, 2001).

중학교 기술·가정의 '의생활' 영역은 초등 실과에 비하여 학습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다. 초등 실과에서 다루지 않았던 '수선과 피복 위생', '피복 선택과 옷차림'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처음 사용되는 개념이나 내용이 많아 초등 실과와 교육내용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옷 만들기과 재 활용' 단원은 내용 상 초등 실과 5학년의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와 6학년의 '재봉틀 다루기' 영역과의 연계에 유의해서 지도해야 할 단원이다. '의복 손질과 보관', '세제의 종류와 장단점', '세탁의 원리와 세탁 방법' 의 내용은 교과서별 학습 개념의 수준 차이가 컸는데 기본적인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거나 그와 반대로 심화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있어서 교육내용의 수준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기술·가정의 '의생활' 영역은 주로 '재봉틀을 이용하여 생활용품 만들기' 내용으로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표 1> 연계성 분석 준거

연계 정도	분석 준거
발전	선행 학습과 후속 학습 간에 심화·확대가 이루어진 경우
반복	후속 학습이 선행 학습에 비해 동일한 수준에서 단순히 반복된 경우
격차	선행 학습에서 누락되었던 내용이 후속 학습에서 급격히 심화된 경우
축소	선행 학습의 개념이나 내용이 후속 학습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된 경우

IV. 결과 및 고찰

1. 교과서 내용 분석

초등 실과와 기술·가정, 가정 과학의 학년 별 '의생활' 영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의 '의생활' 영역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정과학의 '의생활' 영역의 교육내용은 중학교 기술·가정의 교육내용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실과의 '편물과 지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태명과 유지연(2005)도 국민공통기본교과인 기술·가정 교과의 내용이 가정과학에서 중복되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표 2〉 「의생활」 영역 주요 학습 내용

영역 교과·학년	대단원	중단원	주요 학습 내용
실과	5학년	손바느질 하기	손바느질 방법(시침질, 홈질, 박음질, 매듭짓기, 단추달기) 천연섬유/인조 섬유/직물/부직포
		스킬 자수와 뜨개질하기	스킬자수/대바늘뜨기/코바늘뜨기
6학년	재봉틀로 용품 만들기	재봉틀 다루기	재봉틀의 부분 명칭/기능/재봉틀 다루기
		간단한 용품 만들기	재활용/쿠션이나 방석 만들기/재봉틀과 관련되는 직업
기술 · 가정	중학교 2학년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옷의 기능/상황에 맞는 옷 입기/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남녀 한복 바르게 입기/양복 바르게 입기
		의복 마련 계획과 구입	섬유의 종류와 특성/신소재/옷감의 종류와 특성/ 의복 마련 계획/의복 마련 방법/의복 구매의 실제
		옷 만들기과 재활용	치수재기/옷 만들기/현 옷을 이용한 재활용
		옷의 손질과 보관	얼룩빼기/수선하기/세제의 종류와 장단점/세탁의 원리/ 세탁의 종류/수질 오염/의복 보관 방법
고등 학교 1학년	가정생활의 실제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직물의 특성과 장단점/가공의 종류/디자인의 요소/ 디자인의 원리/생활 용품 만들기/진로탐색
가정 과학	고등 학교 2학년 · 3학년	의복의 선택과 착용	의복 계획과 방법/의복비/의복구입/기성복의 생산과 유통 단계/품질 표시/품질 보증 마크/의복의 기능
		의복의 재료와 관리	섬유/실/옷감/신소재/가공의 종류/염색/세탁의 종류/세탁의 원리/수질 오염/세제의 종류/세탁 후 처리/의복 보관방법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디자인의 요소/디자인의 원리/체형과 디자인/황금 분할/한복 만들기/ 한복의 특징/서양의복 만들기/입체구성/평면구성
		편물과 자수	게이지/대바늘뜨기/코바늘뜨기/한국자수/서양자수/십자수/의생활 관련 산업과 직업

위와 같은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연계성 분석을 하기 위한 하위 세부 영역 체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초등 실과와 기술·가정, 가정 과학 교과 내의 '의생활' 영역 주요 학습 내용을 <표 2>에 정리하였다.

2. 연계성 분석

1) 「의생활」 영역의 세부 항목 분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초등 실과와 기술·가정, 가정 과학의 주요 학습 내용과 개념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이은

희, 1993; 최종명, 1999; 정지연, 2003; 강미향, 2005)를 참조하여 '의복 차림·의복계획·의복 재료·의복 관리·의복 구성·진로 탐색'의 총 6개영역 으로 분류하였다. 영역별 하위 세부 항목을 분류하기 위하여 각 영역 별 주요 학습 내용과 개념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성화경, 1994; 이수희, 신상욱, 1997; 최종명, 1999)를 참조하여 하위 세부 항목을 <표 3>과 같이 총 48개로 분류하였다.

2) 세부 항목별 연계성 분석

분석 대상 21종 교과서의 6개영역에 속하는 48개 세부

〈표 3〉 「의생활」 영역 세부 항목별 빈도 및 연계성

영역 / 세부 항목	출판사	교과		기술·가정						기술·가정						가정과학		연계성						
		실과	학년	중학교 8학년						고등학교 10학년						고등학교 11학년 12학년								
				초등학교 5.6	대한교과서	교육사	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	천재교육	두산출판사	지학사	형설출판사	교육사	교육연구사	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	천재교육		두산출판사	지학사	형설출판사	교육사	교문사	상문연구사
의복차림	① 의복의 기원과 의미				●	●	●																축소	
	② 의복의 기능과 역할			●	●	●	●	●	●											●	●	●	반복	
	③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	●	●	●	●												●	●	●	반복	
	④ 때와 장소에 적합한 옷차림			●	●	●	●	●	●											●	●		축소	
	⑤ 서양 의복의 올바른 착용법				●	●	●	●																축소
	⑥ 한국 의복의 올바른 착용법			●	●	●	●	●																축소
	⑦ 한국 의복의 종류			●			●		●											●	●	●		발전
	⑧ 서양 의복의 종류						●		●											●	●	●		격차
	⑨ 한국 의복의 특징과 변천사			●	●	●	●	●	●	●										●	●	●		반복
	⑩ 서양 의복의 특징과 변천사									●											●	●		격차
	⑪ 장신구의 선택과 사용법				●																			축소
	⑫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	●	●	●	●	●		●				●					●	●	●		발전
	⑬ 의복과 신체동작				●	●	●	●																축소
의복계획	① 의복 마련 계획과 의복계획표			●	●	●	●	●											●	●	●		반복	
	② 의복 구매 장소 선택							●											●				반복	
	③ 의복의 생산과 유통																		●	●	●		격차	
	④ 기상복 구매 시 유의할 점			●	●	●	●	●	●											●	●	●		반복
	⑤ 기상복 평가 방법			●	●	●	●	●												●	●	●		반복
	⑥ 의복의 품질표시			●	●	●	●	●												●	●	●		반복
의복재료	① 옷감의 재료와 형성																		●	●			격차	
	② 섬유의 종류와 특성	●		●	●	●	●	●		●	●	●	●	●	●				●	●	●		발전	
	③ 섬유의 성능																		●	●			격차	
	④ 실의 종류와 특성				●		●	●	●											●	●	●		격차
	⑤ 옷감(직물)의 종류와 특성	●		●	●	●	●	●		●	●	●	●	●	●	●				●	●	●		발전
	⑥ 옷감의 성능			●																●	●			격차
	⑦ 옷감의 가공									●	●	●	●		●					●	●	●		발전
	⑧ 염색			●																	●	●		격차
	⑨ 섬유의 감별법			●	●					●										●	●	●		발전

의복관리	① 평소의 의복 관리			●	●	●	●											●	●	축소		
	② 의복의 보관 방법			●	●	●	●	●											●	●	반복	
	③ 의복의 취급 표시			●	●	●	●	●													축소	
	④ 수질오염			●	●	●	●	●	●	●										●	발견	
	⑤ 얼룩빼기			●			●	●	●												●	축소
	⑥ 수선하기			●	●			●														축소
	⑦ 세탁의 종류와 특성			●	●	●		●												●	●	반복
	⑧ 세탁원리와 세탁방법의 종류			●	●	●	●	●												●	●	반복
	⑨ 세탁 후 처리				●	●	●	●													●	발견
의복구성	① 손바느질하는 방법	●		●	●	●	●	●	●	●	●	●	●	●	●	●	●	●	●	●	발견	
	② 미름질 전 옷감 손질법			●	●		●													●		축소
	③ 의복 및 용품 원형 제도 방법				●	●	●	●												●	●	발견
	④ 의복 및 용품 제작순서와 방법				●	●	●	●													●	발견
	⑤ 헌 옷으로 재활용하기		●	●	●	●	●	●	●	●												축소
	⑥ 재봉틀 사용법		●		●		●		●													반복
	⑦ 대바늘뜨기로 용품 및 의복 만들기		●																		●	발견
	⑧ 코바늘뜨기로 용품 만들기		●																		●	발견
	⑨ 한국자수																			●	●	격차
	⑩ 서양자수																			●	●	격차
진로탐색	① 의생활 관련 산업과 직업	●	●	●		●		●	●	●									●	●	발견	

항목별 빈도와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나타나있다.

학년별로 교과서마다 빈도가 꾸준히 나타나지 않은 세부 항목은 학년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영역별로 살펴보면 '의복 차림' 영역의 '의복의 기원과 의미', '서양의복의 올바른 착용법', '한국의복의 올바른 착용법', '장신구의 선택과 사용법', '의복과 신체동작'의 5개 세부 항목은 8학년에서만 다루고 있으므로 「축소」로 보았다. '서양의복의 종류', '서양의복의 특징과 변천사' 항목은 하위 학년의 비중이 극히 적으나 11학년에서 심화·확대된 내용을 보이고 있어서 「격차」로 보았다.

「의복 계획」 영역의 '의복의 생산과 유통' 항목은 하위 학년의 비중이 없고 상위 학년에서 심화·확대된 내용을 보

이므로 「격차」로 보았다.

「의복 재료」 영역의 '옷감의 재료와 형성', '섬유의 성능', '옷감의 성능', '염색'의 4개 항목은 하위 학년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고 11학년에서 심화·확대된 내용을 보이고 있으므로 「격차」로 보았다.

「의복 관리」 영역의 '얼룩빼기', '수선하기', '의복의 취급 표시' 항목은 8학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상위 학년에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축소」로 보았다.

「의복 구성」 영역의 '미름질 전 옷감 손질법', '헌 옷으로 재활용하기'의 2개 항목은 8학년에 구성되어 있으나 상위 학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축소」로 보았다. '한국자수'와 '서양자수'는 하위 학년에는 전혀 다루지지 않다가 11학년에서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격차」로 보았다.

그러나 학년별로 교과서마다 빈도가 어느 정도 꾸준히 나타나서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항목(음영 처리)은 총 29개로 연계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의복 차림」 영역

「의복의 기능과 역할」과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항목은 8학년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고 11학년에서는 그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서 「반복」으로 보았다.

「때와 장소에 적합한 옷차림」 항목은 8학년의 학습 내용보다 11학년의 학습 내용이 현저히 적고 심화·확대된 내용이 없으므로 「축소」로 보았다.

「한국의복의 종류」 항목은 8학년에서 남자와 여자 한복의 구성과 예복에 대해 설명하고 11학년에서는 좀 더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 내용이 심화·확대되었으므로 「발전」으로 보았다.

「한국의복의 특징과 변천사」 항목은 8학년과 11학년에서 다루지고 있는데 그 내용의 정도가 구체화 되지 않고 중복되는 수준이므로 「반복」으로 보았다.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는 8학년에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11학년에서 기본 개념을 세분화하고 있으므로 심화·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발전」으로 보았다.

(2) 「의복 계획」 영역

구체적으로 연계성을 분석할 항목은 「의복 마련 계획과 의복 계획표」, 「의복 구매 장소 선택」, 「기성복 구매 시 유의할 점」, 「기성복 평가 방법」, 「의복 품질 표시」로 5개 항목으로 이 5개 항목은 8학년에서 처음 구성되어지는데 「의복 마련 계획」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옷의 파악, 필요한 옷의 종류와 수의 결정, 자주 입는 옷의 디자인·색상·재질의 분석 내용과 의복 마련 방법으로 물려받는 방법, 수선, 교환, 직접 만들어 입는 방법, 기성복이나 맞춤복을 구매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의복 구매와 관련하여 「의복 구매 장소 선택」, 「의복 품질 표시」, 「기성복 구입 시 유의할 점」, 「기성복 평가 방법」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11학년에서는 의복비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외 내용은 8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중복하고 있는 수준이므로 「반

복」으로 보았다.

(3) 「의복 재료」 영역

「섬유의 종류와 특성」과 「섬유의 감별법」은 5학년에서 아주 간단하게 「섬유의 종류」를 설명하고 8학년에서 천연섬유와 인조섬유의 분류와 관련 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0학년의 경우 생활용품 만들 수 있는 직물에서 섬유의 명칭을 간략하게 나열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11학년에서는 8학년에서 다루지 않았던 섬유의 성능과 섬유의 단면과 측면 사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후속 학습이 선행 학습에 비해 심화·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어 「발전」으로 보았다.

「실의 종류와 특성」 항목 내용은 8학년 때 아주 적은 비중으로 구성되었다가 11학년에서 급격히 심화·발전되었으므로 「격차」로 보았다.

「옷감의 종류와 특성」 항목의 연계 정도는 5학년에서 처음으로 간단하게 다루지고 8학년에서 삼원조직과 편성물, 펠트 내용이 포함되면서 학습 내용이 심화·확대된다. 10학년에서는 생활용품 만들기에 적합한 직물에 대한 내용으로 비중이 축소되나 11학년에서 8학년 내용을 보다 더 세분화·구체화 하였으므로 「발전」으로 보았다.

「옷감의 가공」 내용은 10학년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11학년에서는 가공의 종류에서 보다 발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발전」으로 보았다.

(4) 「의복 관리」 영역

「평소의 의복 관리」는 8학년에서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다루지고, 11학년에서는 거품하기와 일별 의복관리, 주별 의복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지만 8학년에서 다루었던 내용보다 대체적으로 축소되었다.

「의복의 보관 방법」은 8학년에서 의복의 형태, 옷감의 종류, 계절, 용도, 사용자 등에 따라 정리 보관하라는 내용과 방충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11학년에서는 8학년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수준이다.

「수질 오염」과 「세제의 종류와 특성」은 8학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11학년에서 반복하고 있는 수준이므로 「반복

으로 보았다.

‘세탁의 원리와 세탁 방법의 종류’는 8학년에서 매우 자세히 다루고 11학년에서는 8학년 내용보다 세탁기의 종류, 드라이클리닝 할 때의 재오염 그래프 정도만을 더 다루고 있어 「반복」으로 보았다.

‘세탁 후 처리’는 8학년에서 섬유별 다림질 온도와 다림질 기호, 유연제 처리, 표백제 처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11학년에서는 유연제 처리의 장단점, 표백제의 종류로 세분화하여 선행 학습 내용을 심화·확대하였으므로 「발전」으로 보았다.

(5) 「의복 구성」 영역

‘손바느질 하는 방법’은 5학년에서 처음 소개되는데 손바느질의 종류와 방법 설명이 미흡하나 8학년에서는 그림으로 손바느질 방법이나 종류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옷 만들기’나 ‘용품 만들기’의 학습 내용으로 인해 손바느질은 전 학년에 걸쳐서 다루지고 있으며 5학년에서는 손바느질 자체로 용품을 만들었으나 상위 학년으로 갈수록 시접의 단 처리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후속 학습이 선행 학습보다 심화·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발전」으로 보았다.

‘의복 및 용품 원형 제도 방법’과 ‘의복 및 용품 제작 순서와 방법’은 6학년, 8학년, 10학년, 11학년까지 꾸준히 다루지고 있는 내용으로 만드는 의복 및 용품이 다양하게 변화됨으로써 원형 제도 방법과 제작 순서와 방법도 변화 응용되므로 후속 학습이 심화·확대 되어 「발전」으로 보

았다.

‘재봉틀 사용법’은 6학년에서 처음 다루지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8학년에서 재봉틀 사용법을 6학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하고 있는 교과서는 총 5종으로 학습 내용이 심화·확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복」으로 보았다.

‘대바늘뜨기로 용품 및 의복 만들기’, ‘코바늘뜨기로 용품 만들기’의 2개 항목은 뜨개질로 볼 수 있는데 5학년에서 대바늘뜨기와 코바늘뜨기가 자세히 다루지고 있으며, 6~10학년에는 그 내용이 없으나 11학년에서 5학년 학습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게이시 내는 법과 다양한 뜨기 방법 등을 익힐 수 있으므로 「발전」으로 보았다.

(6) 「진로 탐색」 영역

「진로 탐색」 영역의 ‘의생활 관련 산업과 직업’ 항목은 전 학년에 걸쳐 꾸준한 빈도를 보이고 있고 상위 학년으로 갈수록 내용 비중이 많아지고 있어서 「발전」으로 보았다.

위와 같이 ‘의생활’ 영역의 세부 항목별 연계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실과와 기술·가정, 가정 과학 교과 내의 ‘의생활’ 영역의 전반적인 연계성을 살펴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의복 차림」 영역의 연계성은 「축소」된 항목이 46.1%로 가장 많게 나타났는데 「축소」된 항목 중 ‘의복의 기원과 의미’는 의복 차림을 설명하기에 앞서 의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8학년에서만 다루어져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나 심화선택과목인 가정과학에서 좀

<표 4> 「의생활」 영역별 연계성

N (%)

연계성 영역	축소	반복	격차	발전	계
의복 차림	6 (46.1)	3 (23.1)	2 (15.4)	2 (15.4)	13 (100)
의복 계획	0	5 (83.3)	1 (16.7)	0	6 (100)
의복 재료	0	0	5 (55.5)	4 (44.4)	9 (100)
의복 관리	4 (44.5)	3 (33.3)	0	2 (22.2)	9 (100)
의복 구성	2 (20.0)	1 (10.0)	2 (20.0)	5 (50.0)	10 (100)
진로 탐색	0	0	0	1 (100)	1 (100)
계	12 (25.0)	12 (25.0)	10 (20.8)	14 (29.2)	48 (100)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 외에 '때와 장소에 적합한 옷차림', '서양의복의 올바른 착용법', '한국 의복의 올바른 착용법', '장신구의 선택과 사용법'과 같은 항목들이 '축소'로 나타났다. 「반복」으로 나타난 항목은 '의복의 기능과 역할',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한국의복의 특징과 변천사'이다. '의복의 기능과 역할'은 8학년 7종 교과서와 11학년 3종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학습 내용이 발전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은 「발전」된 항목인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와 연계하여 학습 내용을 좀 더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복의 특징과 변천사'는 하위 학년과 상위 학년에서 꾸준히 다루고는 있지만 그 내용의 수준이 심화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복의 변천사'는 8학년의 8종 교과서 중 2종, 11학년의 3종 교과서 중 1종만이 다루고 있다. 「격차」로 나타난 '서양의복의 특징과 변천사'는 11학년에서만 다루고 있어 현재 교육과정에서 '복식사'가 거의 다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복 계획」 영역은 「격차」로 나타난 '의복의 생산과 유통'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 즉, '의복 마련 계획과 의복 계획표', '의복 구매 장소 선택', '기성복 구매 시 유의할 점', '기성복 평가 방법', '의복의 품질 표시'에서 「반복」으로 나타났다. 이 5개 항목의 내용은 8학년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심화교과인 11학년에서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혹은 8학년과 11학년의 내용 구성에 적절한 위계가 필요하다.

「의복 재료」 영역은 55.6%가 「격차」, 44.4%가 「발전」으로 나타났는데 '옷감의 재료와 형성', '섬유의 성능', '실의 종류와 특성', '옷감의 성능', '염색' 항목이 「격차」로 나타났다. 이 5개 항목은 초등 실과와 기술·가정에서는 거의 다루지지 않고 11학년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하위 학년과 내용 구성의 적절한 위계가 필요하지만 11학년의 가정과학이 심화선택교과인 만큼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의복 관리」 영역은 「축소」가 44.5%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평소의 의복 관리', '의복의 취급표시', '얼룩빼기', '수선하기'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 4개 항목은 8학년에서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11학년 심화교과에서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복의 보관 방법', '세제의 종류

와 특성', '세탁의 원리와 세탁 방법의 종류'는 8학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11학년에서 「반복」되었으나 가정과학은 심화교과인 만큼 학년별 내용 구성의 적절한 위계가 필요하다.

「의복 구성」 영역의 경우 「발전」이 50.0%로 가장 많아서 수직적 연계 정도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초등 실과에서부터 기술·가정, 가정과학까지 학년별 학습 내용이 각각 다르고 하위 학년은 용품이나 하의 만들기 위주에서 상위 학년으로 갈수록 상의와 하의 만들기, 한복 만들기로 실습 내용이 심화·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축소」된 항목은 '머름질 진 옷감 손질법', '헌 옷으로 재활용하기'인데 이는 「발전」으로 나타난 '용품 및 의복 만들기'와 연계할 수 있다. 「격차」로 나타난 '한국지수'와 '서양지수'는 심화교과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진로 탐색」 영역은 「발전」이 100%로 '의생활 관련 산업과 직업'에 대한 내용 구성의 연계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의복 구성」 영역과 「진로 탐색」 영역은 주된 연계 정도가 「발전」으로 나타나 교과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의복 차림」, 「의복 계획」, 「의복 재료」, 「의복 관리」 영역에서는 주된 연계 정도가 「축소」, 「반복」, 「격차」등으로 나타나 교과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의생활 영역의 경우 「발전」이 29.2%로 가장 많았고 「반복」과 「축소」가 각각 25%, 「격차」가 20.8%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제7차 교육과정의 5~6학년의 실과와 7~10학년의 기술·가정, 11~12학년의 심화선택교과인 가정과학의 '의생활' 영역 내용분석을 통해 6개영역 48개 세부항목의 수직적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 차림」 영역의 수직적 연계 정도는 「축소」된 내용이 46.1%로 가장 많았다. '의복의 기원과 의미', '때와 장소에 적합한 옷차림', '서양의복의 올바른 착용법', '한국 의복의 올바른 착용법', '장신구의 선택과 사용법', '의복과 신체동작' 내용이 축소로 나타났다. '의복의 기능과 역할',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한국의복의 특징과 변천사’는 반복으로, ‘서양의복의 종류’, ‘서양의복의 특징과 변천사’는 가정과학에서만 주로 다루고 있어 격차로 분석되었다. ‘한국 의복의 종류’와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만 발전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복 계획」 영역의 연계성은 「발전」된 내용은 없고, 「격차」로 나타난 「의복의 생산과 유통」을 제외하고는 「반복」된 내용이 83.3%로 가장 많았다. 「의복 마련 계획과 의복 계획표», 「의복 구매 장소 선택», 「기성복 구매 시 유의할 점», 「기성복의 평가 방법», 「의복의 품질표시」 내용이 기술·가정과 가정과학에서 반복되었다.

셋째, 「의복 재료」 영역은 「격차」와 「발전」의 연계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옷감의 재료와 형성’, ‘섬유의 성능’, ‘실의 종류와 특성’, ‘옷감의 성능’, ‘염색’ 항목이 「격차」로 나타났다.

넷째, 「의복 관리」 영역은 「축소」된 부분이 44.5%, 「반복」이 33.3%로 ‘평소의 의복 관리’, ‘얼룩빼기’, ‘수선하기’, ‘의복의 취급 표시’가 축소되었고, ‘의복의 보관 방법’, ‘세제의 종류와 특성’, ‘세탁의 원리와 세탁 방법의 종류’가 반복되었다.

다섯째, 「의복 구성」 영역은 「발전」된 내용이 50.0%로 후속 학습이 선행 학습보다 심화·확대된 내용이 가장 많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마름질 전 옷감 손질법’, ‘흰옷으로 재 활용하기’는 축소되었고, ‘재봉틀 사용법’은 반복으로 ‘한국자수’, ‘서양자수’는 격차로 나타났다.

여섯째, 「진로 탐색」 영역은 5학년 초등 실과부터 11학년 가정과학에 이르기까지 직업세계의 폭을 넓혀가며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서 「발전」이 100%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실과, 기술·가정, 가정 과학의 ‘의생활’ 영역의 전반적 수직적 연계 정도는 「발전」된 내용이 29.2%로 가장 많았고, 「축소」와 「반복」이 각각 25%, 「격차」가 20.8%로 나타났다. 「축소», 「반복», 「격차」보다 「발전」된 내용이 많으나 「발전」의 정도가 현저히 높지 않기 때문에 교육내용의 수직적 연계가 매우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의생활」 영역 내용 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실과의 경우 의생활은 ‘용품 만들기’ 영역으로만 이루어져 기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의생활에 대해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에게 의복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의생활의 기초라 볼 수 있는 「의복 차림」 영역이 포함되는 교과과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이 중학교에서 발전되어 나타난다면 적절한 학년 간 수직적 연계에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의 ‘재봉틀로 용품 만들기’의 경우 현재 실습실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의 달성이 어려우므로 중학교 기술·가정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둘째, 8학년과 10학년의 기술·가정에서는 의생활영역의 대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데 이는 국민 기본 공통 과목으로 남녀학생 모두가 의복에 대한 내용을 접하는 기회이므로 의생활의 기본을 교육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고루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복 차림」 영역의 경우 축소로 평가된 「의복의 기원과 의미», 「때와 장소에 적합한 옷차림», 「서양의복의 올바른 착용법», 「한국의복의 올바른 착용법», 「장신구의 선택과 사용법」은 의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8학년에서만 다루어져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며 가능하면 초등학교에서 먼저 다루어 연계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반복으로 평가된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은 발전으로 평가된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와 연계하여 체형, 개성, 이미지에 따른 옷차림 등의 내용으로 좀 더 구체화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복 계획」 영역 중 「의복 마련 계획과 의복 계획표», 「의복 구매 장소 선택», 「기성복 구매 시 유의할 점», 「기성복 평가 방법», 「의복의 품질 표시」 항목은 반복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학년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심화교과인 11학년 가정과학에서는 삭제하여도 될 것이다.

「의복 재료」 영역은 발전과 격차로 평가되는데 격차로 나타난 「옷감의 재료와 형성», 「섬유의 성능», 「실의 종류와 특성», 「옷감의 성능», 「염색」 항목은 주로 심화교과인 가정과학에서만 다루고 있어 큰 무리는 없으며 중학교 기술·가정에서 모든 내용을 소화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

「의복 관리」 영역 중 축소로 나타난 「평소의 의복 관리」,

‘의복의 취급표시’, ‘얼룩빼기’, ‘수선하기’와 반복으로 나타난 ‘의복의 보관 방법’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8학년에서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11학년 심화교과에서는 삭제해도 된다. 그러나 반복된 ‘세제의 종류와 특성’, ‘세탁의 원리와 세탁 방법의 종류’는 가정과학에서 심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의복 구성」 영역은 발전이 50%로 수직적 연계가 가장 잘 이루어졌는데 축소된 ‘마름질 전 옷감 손질법’과 ‘헌옷으로 재활용하기’는 8학년에서만 다루면 충분하며 발전으로 평가된 ‘용품 및 의복 만들기’와 연계할 수 있으므로 가정과학에서는 삭제해도 된다. 격차로 나타난 ‘한국자수’와 ‘서양자수’는 가정과학에서 처음 소개되는데 이 역시 중학교 기술·가정에서 모든 내용을 소화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인 가정 과학의 경우 모두가 배우는 과목은 아니므로 심화된 내용이 다루어져도 상관없을 것이다. 특히, 격차로 나타난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는 필요한 내용으로 가정 과학이 심화선택과목임을 고려하고, 또한 중학교 기술·가정에서 모든 내용을 다룰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연계정도가 축소로 나타난 ‘평소의 의복 관리’, ‘얼룩빼기’, ‘마름질 전 옷감 손질법’과 반복으로 평가된 ‘의복의 보관방법’과 ‘의복의 생산과 유통’을 제외한 「의복계획」 영역에 속하는 항목들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8학년에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다루므로 가정 과학에서는 다시 반복할 필요 없이 내용을 삭제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나 역시 반복으로 평가된 ‘의복의 기능과 역할’,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한국의복의 특징과 변천사’, ‘세제의 종류와 특성’, ‘세탁원리와 세탁방법의 종류’ 항목은 가정과학에서 심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좀 더 심화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학년 간 및 학교 급별 수직적 연계성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수평적 연계성이 고려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향후 주어진 교과과정 내에서 의생활 영역의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직적 연계성 뿐만 아니라 수평적 연계성도 함께 고려한 의생활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미향(2005).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의생활 단원의 내용 분석과 수업만족도 조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1988). 초·중·고 확률 및 통계영역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근희(2001). 초·중·고등학교 생활영역의 연계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희(2005).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제1차 토론회, 주제 :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5-22.
- 성화경(1994). 중·고등학교 가정 과목 의생활 분야 교육내용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6(1), 61-72.
- 송순희·위정숙(1991). 초·중 교과서 기하영역의 연계성. 한국수학교육학회지, 30(2), 125-148.
- 송순희·김윤영(1998). 초·중·고 수학 교과서 해석 영역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수학교육학회지, 37(1), 87-99.
- 양정혜(2004). 실과와 가정교과의 식생활 교육내용의 연계성 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6(3), 27-41.
- 왕석순(2005). 제7차 기술·가정 교육내용 적정성 평가.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4), 133-156.
- 유태명·유지연(2005).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 의생활 영역의 교육 목표와 내용체계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2), 183-195.
- 이수희·신상욱(1997). 남녀 중학생의 의생활영역 학습내용과 학습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9(2), 115-130.
- 이양락·박순경·정영근·송현정·윤현진·강대현·이대현·이춘식·서지영·이경언·박소영·이의갑(2004). 제7차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한국교육과정개발원 연구리포트.
- 이은희(1993). 초·중·고등학교 의생활 교육 과정의 체계 정립 및 필요도 조사 요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2002). 초등학교 실과와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가족과 일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식·이수정·방기혁·전세경·김태환·김순주(2004). 실과(기

술·가정) 교육과정 실태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4-4-8.

이춘희(2001). 초등학교 실과교과에 반영된 가정교육 내용분석.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수경(2004).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의 '가족생활' 영역 연계성 분
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아(2004). 고등학생의 기술·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 영
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지연(2003).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중학교 가정 교과서 의생활
단원 변천 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종명(1999). 가정교과 의생활 영역에 대한 교육내용 필요도 및
교육 자료의 활용 실태-충북지역 중학교 교사를 중심으
로. 서원대학교 교육연구소 학술 저널, 18(1), 237-254.

한성은(2005). 제7차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실과(기술·가정)
교과서의 소비자 교육 내용과 학교 급 별 연계성 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05년도 동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자료.

Bruner, J. S.(1960). The Process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Gané, R. M.(1970). The Conditions of Learning. Holt, Rinehart
and Winston.

Taba, H.(1962). Curriculum Development-Theory and
Practice. Harcourt, Brace, Jovanovich.

Tyler, R. W.(1949). Basic Principl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국문요약>

초·중·고등학교 실과, 기술·가정, 가정과학 교과의 '의생활'영역 내용을 분석하고, '의생활'영역을 세부영역으로 분류하여 수직적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의생활'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실과 각 1종 교과서와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기술·가정 각 8종 교과서 및 고등학교 가정 과학 3종 교과서로 총 21종 교과서를 선택하였다. 연계성은 내용 분석 결과 '의생활'영역을 6개영역, 48개 하위 세부영역으로 분류한 뒤 내용의 계속성과 계열성이 지속적일 때 「발전」으로, 계열성이 고려되지 않은 계속성은 「반복」으로, 계속성이 고려되지 않은 계열성을 「격차」로, 계속성과 계열성 모두 결여된 것을 「축소」로 보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의복 차림」과 「의복 관리」 영역의 연계 정도는 「축소」된 내용이 46.1%와 44.5%로 가장 많았다. 「의복 계획」 영역의 연계 정도는 「발전」된 내용은 없고 「반복」된 내용이 83.3%로 가장 많았다. 「의복 재료」 영역은 「격차」와 「발전」된 내용이 각각 55.6%와 44.4%로 나타났다. 「의복 구성」 영역은 「발전」된 내용이 50%로 가장 많았다. 「진로 탐색」 영역은 「발전」이 100%로 나타났다.

초등 실과와 기술·가정, 가정 과학 교과 내 '의생활' 영역의 전반적 수직적 연계정도는 「발전」된 내용이 29.2%로 가장 많았고, 「축소」와 「반복」된 내용이 각각 25%, 「격차」를 나타낸 내용이 20.8%로 나타났다. 「발전」된 내용이 「반복」, 「축소」, 「격차」가 이루어진 내용보다 많으므로 어느 정도 연계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학년 간 연계의 「발전」 정도가 현저히 높지 않기 때문에 교육내용의 수직적 연계가 매우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의생활'영역에 대한 연계성 분석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향후 교과과정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자: 2006년 8월 15일, 논문심사일자: 2006년 9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12월 6일